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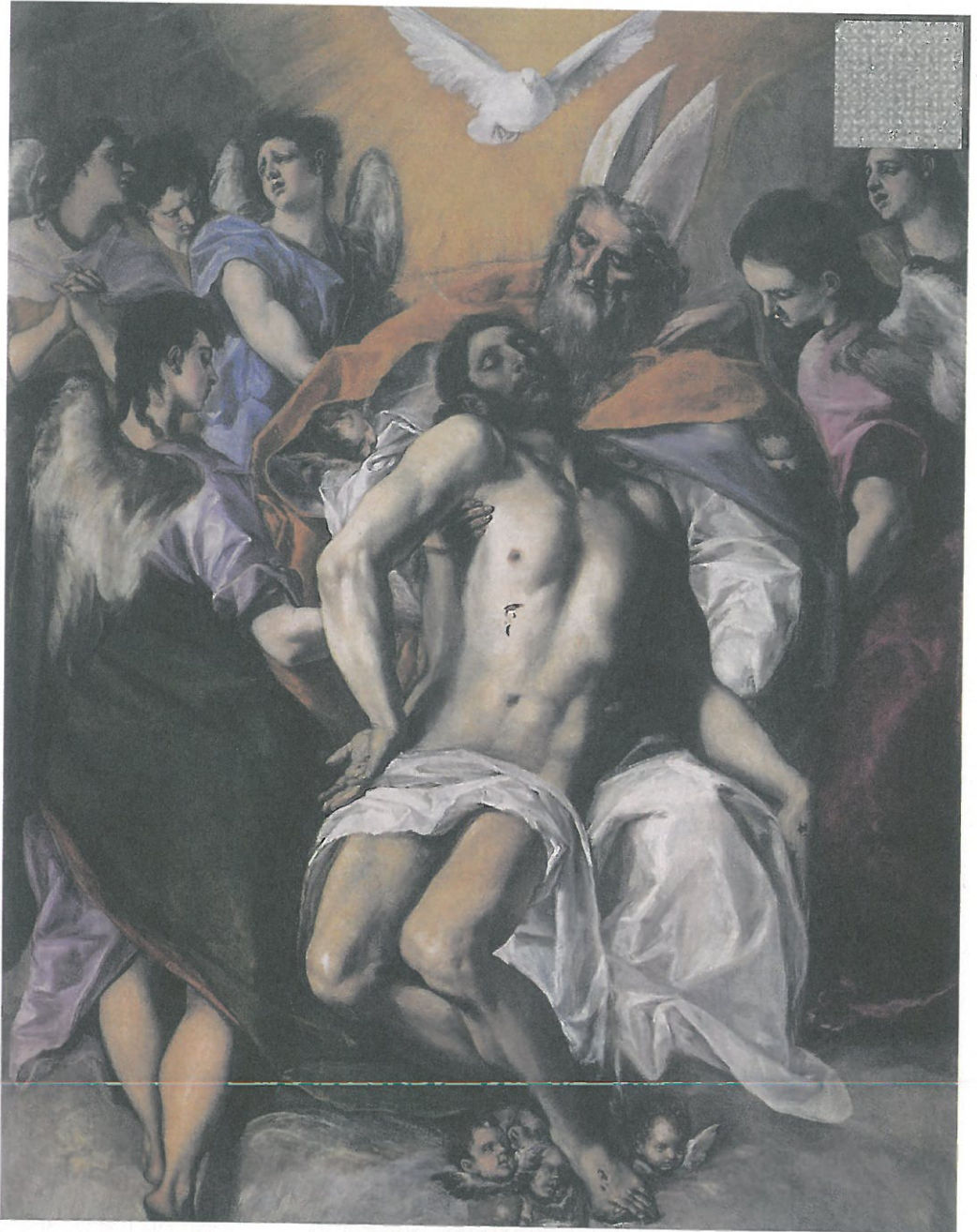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493호  
2024년 3월 10일(나해)

사순 제4주일

## 삼위일체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  
1577-1579, 캔버스에 유화  
300×178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 입당송 |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 제1독서 | 2역대 36,14-16.19-23

## 화답송 | 시편 137(136),1-2.3.4-5.6(◎ 6ㄴㄹ)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 제2독서 | 에페 2,4-10

##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복음 | 요한 3,14-21

## 영성체송 | 시편 122(121),3-4 참조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교회는 전통 안에서 사순 시기 네 번째 주일을 '환희의 주일'로 기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미사 안에서 듣는 말씀들은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보여주며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안고서 주님을 향해 돌아서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1독서(2역대 36,14-23)는 우상숭배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호소를 거부한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시작합니다. 그러한 행태를 통해 하느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비웃었다'고 비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신례, 자신만의 복을 구하는 데만 열심인 예배 행위가 실은 하느님에 대한 조롱과 무시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불충한 이들에게 닥쳐온 결과는 유배였지만, 하느님께서 유배를 떠나는 이들에게도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독서는 하느님께서 이 사실을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일깨우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귀환은 오랜 약속의 실현임을 확인하며,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제2독서(에베 2,4-10)는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자비를 대조시키며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사람은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따름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저자는 '선행'마저 하느님에게서 비롯됨을 알려주며 '선행의 삶'이 우리

가 구해야 하는 은총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니코데모와 대화하시며 당신께서 십자가상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구리 뱀 이야기'(민수 21,4-9)를 통해 구원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임을 일깨우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하느님께 불충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자비의 초대는 믿음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믿지 않는 이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요한 3,21)는 말씀은 참된 믿음의 응답이란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 곧 진리이신 아드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삶이 은총의 삶이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일깨웁니다.

사순 시기 동안 계속해서 듣게 되는 '회개'를 일깨우는 말씀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되새기도록 하며 형식적 신앙,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 돌아서서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자신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기도와 단식,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절제하고 가진 바를 나누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본성(하느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회개의 때'를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삼위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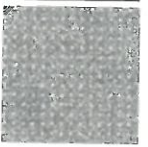
엘 그레코가 그린 이 성화는 예수님의 몸을 비현실적으로 길고 비틀어진 자세로 묘사하여 그 고통을 더욱 배가시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부 아버지의 시선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비둘기 모습의 성령께서도 그 고통에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비추는 배경의 금빛 섬광은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최준익 목사모 | 가톨릭 찬양 사도

## 주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 시작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성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던 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고 싶은 일들과 지향하는 목표가 생기자 그 울타리의 따뜻했던 기억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저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제가 원하는 일과만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길에만 흥미와 재미를 느껴, 활동하면서 공허함에 흔들리고 걸려 넘어져 갈 길을 잃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갈려는 용기가 없어 쉽게 타인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그분을 등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대중음악 가수의 길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연습하며 노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여, 지우지 못할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라고 주님께 원망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사람과 단절되는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목자이신 주님은 늘 저를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표에 이르지 못해 실망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분은 주변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 사랑을 보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서 노래할 수 있도록 아니,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사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했고 때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길이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의 일부였음을, 또 제게 참으로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가는 동안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넘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찾는 용기를 갖추고 늘 깨어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기도로 청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큰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시선을 가지길 바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행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한 컷  
교리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미밭오소서 33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 손을 뻗어라

(마르 3,1-6)



이명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 되자 다른 유대인처럼 회당으로 가시어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회당에 들어서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소문이 무성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그들 사이로 보이는 손이 오그라든 병을 겪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사람을 보시며 그가 겪고 있을 아픔을 예수님께서서는 알아차리십니다. 그를 유심히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려나 봅시다. 어디 한 번 지켜봅시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는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안식일에 금지된 ‘밀 이삭을 뜯는 행동’(마르 2,23 참조)을 했던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당신과 제자들을 비난하던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듯 날 쉬신 것 같이 인간이 일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안식일이 인간을 옥죄는 멍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르코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노기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은 안식일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 곧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뻗자 오그라들어 있던 손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 그들 권력의 기반이 되는 율법을 어긴 모습에 분개하며 바리사이와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모의를 합니다. 손이 오그라들어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에 마음이 오그라든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보다 그들이 더 아파 보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인간이 그 은총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율법의 규정 속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율법은 언제나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하느님을 향한 표지판, 양심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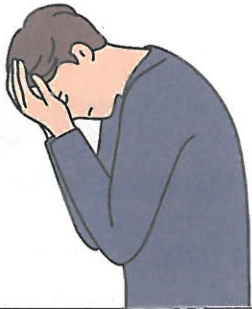
영국의 한 공항에는 'Kiss and Ride'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는 다소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입을 맞추고 운전을 하라니요. 도무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설치된 장소와 문화를 고려하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일단 이 표지판은 여행객들이 차에서 내리는 구역에 있습니다. 하차한 이들이 자신을 배려해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곳이지요. 또한 서구인들은 인사를 간단한 볼 키스로 나누곤 합니다. 결국 이 모두를 고려하면, 작별 인사가 길어지면 교통이 정체되니 '빨리 인사하고 운전해서 떠나라'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표지판은 우리에게 요약된 이미지를 통해 지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읽지 못한다면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되지요.

이 비유는 그리스도교 윤리의 '양심'에 대한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양심은 사람들에게 윤리 의무를 제시해 주는 감각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 스스로 알몸임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인간의 본성에 양심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어느 역사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통해 선과 악을 내밀하게 말씀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양심을, "하느님과 만나는 영혼의 중심 처소이므로 죄에 몰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소."라고 언급합니다. 인간은 이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합니

다. 이 법은 교통 표지판처럼 오로지 인간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이에 교회는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며, 그러므로 양심은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세심하고 민감하게 양심을 따르는 한편, 누군가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올바른 양심을 위해 반드시 '실천적 윤리 지식'(consentia)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양심의 빛을 수용해 이를 적용하는 추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을 향한 표지판이 양심이라면 이를 식별하고 파악하는 능력과 의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경청, 교육, 훈련을 통해 발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교리 교육, 계명의 숙고, 기도를 통한 정화, 무엇보다 고해성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과 의지는 과연 어떠한지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시샘과 질투가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양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지판을 따라 올바르게 나아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 하느님 앞에 살아 있는 신앙을 보여주면 청소년들의 심장은 뛰니다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심터(서울A지T) 소장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맺은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됩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통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개신교 목사님께서 본인 가정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조폭이셨고, 후에 나이가 들어 교회에 다니게 되셨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폭력적이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나가도 변화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실망을 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반항하느라 일부러 매일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도 바닥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의 아버지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 미행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 있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셨고 그 뒤를 몰래 따라간 목사님은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지가 소리 내어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도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 주세요. 아

내와 아들에게 화내거나 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한 아빠, 남편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강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과 변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 더 이상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을 그만 두고 집에 일찍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고, 매일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시 대기업에서 뽑는 장학생 전형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7)라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과 교회라면 청소년들에게 뿌려진 신앙의 씨는 자라나 알찬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전화로 고해성사 받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실제로 교황청에는 1층과 2층을 전화로 연결하여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고해소가 있었습니다. 2층에 사제가 대기하고 있고, 1층에서 고해자가 수화기를 들고 고해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에 한때 존재했다는 이 고해 전화기(?)는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통화 정보가 지나가는 기지국 등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정보를 낚아채 통화를 엿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집 전화 등은 기술적으로 도청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누군가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고 해킹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왜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고해성사가 안 되느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고해성사 비밀 누설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약간의 편리성 향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 그래도 신부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만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고해성사는 홀로 잘못했음을 선언하고 빠져나가는 일방적인 창구가 아니며, 용서를 '청하고' 동시에 '받으며' 하느님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고해성사야말로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제를 통해 직접 하느님과 만나고 마음이 움직이는 소통을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칭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 얼굴을 마주하고 더듬거리는 말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직접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테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떨리는 목소리를 확인하며, 같은 장소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인격적' 만남이 사랑 안에서는 항상 면밀히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여 고백하고 그분과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직접 나아가 그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 그런데 본당 고해소에서 맞은편 사람 고해 내용이 다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청(?) 아닙니까?

신부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으로 고해자가 들어오는 구조의 고해소를 말씀하시는군요. 만약 맞은편 사람의 고해 내용이 다 들릴 정도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고해소라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는 고해소를 적절히 준비하여 고해자가 하느님께 자비를 입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사제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해소에 들어가셨는데, 맞은편에 계신 고해자의 고해 내용이나 해당 고해자에게 건네는 사제의 훈화 내용을 들었다면, 이를 고해 사제에게 밝히셔야 합니다. 고해 내용이나 훈화를 들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들었는지도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사제가 조처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해 내용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성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 의무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교리문고답하기는 서울대교구 법원 재판관이신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2월 24일(토)에 이경상(바오로) 신부를 신임 보좌주교로 임명 하셨습니다.

- 1960년 11월 1일 서울 출생
- 1988년 2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 1988년 2월 12일 사제수품
- 1988년 2월 사당동 본당 보좌
- 1990년 2월 해외유학
- 1996년 10월 동대문 본당 주임
- 1998년 9월 겸) 서울대교구 법원 부법원장
- 1999년 10월 방학동 본당 주임
- 2001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사무처장
- 2004년 9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국장
- 2007년 11월 겸) 서울대교구 법원 법원장
- 2009년 9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부국장
- 2009년 12월 서울성모병원 원목실
- 2010년 2월 성바오로병원 원목부실장
- 2010년 9월 겸) 서울대교구 법원 성사보호관 겸 검찰관
- 2011년 2월 성바오로병원 원목실장
- 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부국장
- 2013년 2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보건정책실장
- 2018년 8월 ~ 현재 겸) 서울대교구 법원 법원장
- 2022년 8월 ~ 현재 개포동 본당 주임
- 2024년 2월 24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임명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9년 3월 12일 강도영 마르코 신부(66세)
- 1981년 3월 15일 이용유 베네딕토 신부(36세)
- 1983년 3월 14일 박성중 프란치스코 신부(60세)
- 2005년 3월 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 2013년 3월 12일 이계중 세례자요한 신부(91세)

### 2024년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

선교는 교회의 보편적 사명입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정록수 헨리코(과테말라), 기호배 맞세오(일본) 신부를 해외 선교 사제로 임명하며,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하오니 참석하시어 기도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27-2424 해외선교봉사국  
 때, 곳: 3월 21일(목)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 5일(금) 오전 10시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 (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3월 11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4월 3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5일(금)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야외제대), 우천시 추모관 내 1층 /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 교구청 알림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3월16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 환경사목위원회

1) 제6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때, 곳: 3월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 2)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연구소에서 사순절 기간에 본당의 십자가의 길 기도에 활용하도록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십자가의 길 각 처마다 생태적으로 파괴되어 고통을 받는 생태계 현실을 묵상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다른 피조물들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태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도문은 2024년 1월22일 자료 서울대교구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기도문은 홈페이지(<https://eco.catholic.or.kr>)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지우 개인전: 1전시실  
 다섯 신부의 묵상 서예전: 2전시실  
 가톨릭바오로사진기회 전시회: 3전시실  
 전시일정: 3월13일(수)~21일(목)

### 2024 사목국 노인사목팀 교육 안내

문의: 02)727-2385, 2386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1) 2024 상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0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선착순 마감)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과목당 8만원  
 신청기간: 과목1 3월24일(일)까지, 과목2 4월30일(화)까지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과목 1 유아발달이해	4월2일~5월7일 매주(화) 10시30분~12시30분
과목 2 신앙전수법	5월14일~6월18일 매주(화) 10시30분~12시30분

2) 시니어 아카데미 동아리지도사 양성교육  
 모집과정: 마음나누기(심성수련), 노래, 율동  
 교육대상: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모집일정: 3월22일(금)까지 / 지원방법: 지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작성하여 팩스(02-727-2117) 또는 이메일(samoksenior@seoul.catholic.kr) 접수  
 교육비: 1인 20만원(회비 미납본당 1인 25만원)

###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3월12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3월25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경희 비비안나, 은서영(미경) 안젤리나, 정연진 가브리엘라, 정재은 데레사, 허철영 요한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 '슬픔 속 희망찾기' 3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집전사제: 이창영 신부  
 때, 곳: 3월16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4 신구약 성경통독 강의**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회비: 12만원(연회비)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주제어독후감 공모전**

주제: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기원 및 현양 / 응모자격: 청소년부, 일반부  
 응모기간: 1월28일~4월28일 접수분까지  
 상세안내: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참조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409차 미사 3월1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청계동 본당, 장언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평화의 바람 기행' 모집

내용: 평화감수성교육, 접경지역 순례  
 대상: 누구나 40명(9km 도보(산행) 가능한)  
 때: 4월13일(토)~14일(일) 1박2일 / 문의: 02)753-0815  
 곳: 파주-연천-춘천-철원 / 회비: 5만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24년 봄학기 공개대학**

3월21일 (조평)	200주년 행사 준비 과정	5월1일 (변문수)	200주년 기념행사의 학술적 성과
3월27일 (한홍순)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5월8일 (변진홍)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
4월1일 (최홍준)	200주년 기념대회의 진행 과정	5월22일 (김해중 대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
4월17일 (이민석)	신문 기사 속의 200주년 대회	5월29일 (노길명)	2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과와 과제
4월24일 (윤민구 신부)	한국천주교회의 시복시성운동	6월5일 (조환건 신부)	종강 미사 (연구소 4층)

때, 곳: 3월20일~6월5일 매주(수) 19시~20시20분,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A104(10회차)  
 문의: 010-3348-1901 이충자 간사 / 회비: 10만원 (국민은행 8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동인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3지구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대상: 누구나(접심 제공) / 이창진 신부  
 때, 곳: 3월20일(수) 12시~16시, 갈현동성당

**3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3월21일(목)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3월12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양중국 신부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2024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곳: 3월15일(금)~17일(일)·4월26일(금)~28일(일)·5월24일(금)~26일(일), 김포-파주-연천-철원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움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계좌: 신한 131-022-218086 가정선교회(입금 후 연락)  
 회비: 20만원(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5월25일(토) 14시~26일(일) 17시, 아론의 집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11일~13일·4월16일~18일·4월20일~22일·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추차도)·5월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24일·5월26일~29일(추)·6월1일~3일·6월12일~14일·6월16일~18일·6월21일~23일·7월1일~4일(추)·7월12일~14일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6월21일~22일	소록도	4월19일~20일
원주 춘천	4월12일~13일	전주 광주	5월9일~11일
홍성남 신부와 성지순례	북해도 6월3일~7일		
	아키타 9월2일~6일		

**교구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문의: 010-3807-1784 라이스돌(예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4월13일~15일·6월15일~18일(수도원·대구 17곳), 5월4일~7일·7월13일~16일(수도원·부산 11곳·마산 6곳)-서울 명동(대형버스) 출발
국외	5월15일~27일, 바티칸·이탈리아·독일 수도원(대한항공)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순례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7월25일~28일(우도)
성지	4월2일~5일, 4월13일~16일, 4월25일~28일,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6월3일~6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11일(토)~12일(일), 6월8일(토)~9일(일)
3박4일	4월4일(목)~7일(일) 4박5일 5월27일(월)~31일(금)
8박9일	3월14일(목)~22일(금), 4월15일(월)~23일(화)
40일	4월11일(목)~5월20일(월)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보자기아트 강좌**

한국의 전통 포장 기법 보자기아트 수강생 모집  
 때: 4월1일~6월24일 매주(월) 13시~16시(12주 과정)  
 회비: 40만원(재료비 별도)  
 과정 수료 후 보자기아트 2급 자격 취득 가능  
 문의: 02)705-8718(https://sccc.sogang.ac.kr)

**새천년복음화학교 개강(150기)**

때, 곳: 4월24일(수) 14시·5월2일(목) 10시,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수원교회사연구소 신앙선조 교리학교**

내용: 신앙선조의 중요교리(핵심정리 교리교육)  
 강의: 정 바오로 신부(연구소장)  
 때: 3월~7월 매주(일) 10시~10시50분(11시 미사)  
 곳: 구산성지 성당 / 문의: 010-8588-7177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시다' 성체조배 영성학교**

강사: 교구 지도 사제단  
 때, 곳: 3월20일·27일·4월3일·17일·24일 매주(수) 14시~16시,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일)까지 원서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병행)**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4월11일부터 매주(목)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온라인 Zoom  
 4월4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 영어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한국사능력검정, 바리스타, 코딩 등 / 봉사자모집: 검정고시(사회과목), 수능합습지도, 코딩수업 가능한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나이 들, 새로운 소명-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그리스도 가치로 지나온 삶을 성찰, 새로운 소명 찾기 / 대상: 60세 이상 평신도(매회 8명)  
 때, 곳: 4월11일~5월11일(300만원)·6월3일~17일(150만원), 예수회 공동체(강원도 홍천)  
 계좌: 우리 1005-904-598156 한국예수회  
 facebook.com/groups/newvocation  
 문의(접수): 010-7451-9707 최대제 신부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사순 특강·피정**

곳: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1) 사순 특강: 3월11일(월) 10시~16시(15시 미사)  
 강사: 윤홍민 신부  
 2) 사순 피정: 3월18일(월) 10시~16시  
 점심식사 제공, 파견미사  
 피정지도: 김영복 신부(분당 성요한 성당)  
 회비: 1만원 / 문의·피정접수: 070-8672-0327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강좌·피정**

곳: 삼성동 / 문의(접수): 010-3845-3045  
 담당: 정규한 신부(예수회)

**1) 생활기도수련 7기 일반 과정**

때: 매주(금) 13시30분~16시 / 내용: 이나시오 영신수련 강의 방법: 현장, Zoom, 녹화강의 병행

**2)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15명)**

내용: 강의, 기도, 질의응답 / 회비: 3만원(점심 포함)  
 때: 매일 셋째주(수) 10시~16시 3월20일·4월17일

**서울대학교 가톨릭 다도회 불학기 회원모집**

다례와 전통예절 교육(인사동 교육장)  
 문의: 010-5246-9906, 010-3707-5712

화요일	3월19일부터 10시30분~12시30분(13주간)
목요일	3월21일부터 14시~16시(13주간)

**해외가톨릭보딩스쿨 학교 설명회**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학교설명회	4월13일(토) 오전 11시(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 남 더블린, 여 보스턴

**전·진·상(全眞常) 서로돌봄 프로젝트 '네, 여기 있습니다' 1 노년, 누가 저를 돌보아 줄 수 있습니까?**

대상: 노후를 준비하며 새로운 노후 삶을 꾸리는 모든 분들  
 때, 곳: 3월19일(화) 10시~12시, 전진상센터(합정동)  
 회비 없음 / 문의: 02)326-6000, 010-7527-1956  
 (문자 접수) (재)국제가톨릭학제회(A.F.I)

기초강연	초기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간의 서로돌봄의 의미와 실천 방안 모색	구요비주교
강연1	나이들의 존엄함과 돌봄의 호혜적 가치	
강연2	지역사회 돌봄관계망 형성을 위한 실천적 연대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

지난 학기, 상시 개강, 각 6주~12주 과정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 발송  
 더 많은 강의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박해 시대 이야기	소진형 박사
성인들의 꿈이 알려주는 10가지 비전	홍기영 교수
기도란 무엇인가?	이규성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 불완전한 영혼의 영성 여정-가치와 욕구	최지원 수녀

**모집**

**무지카사크라 서울 합창단 단원 모집**

교회음악, 무반주 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라  
 서울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지휘: 신기호 신부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교우 / 문의: 010-9464-0680

**시스미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미나 음악원(주최, 신촌) / 010-9842-8818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 남성 환영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미사**

**세계평화와 남북한 평화통일 기원 미사**

미사 주제: 손희송 총대리 주교  
 강사: 박효철 신부(청주교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서울대학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곳: 3월19일(화) 12시30분~16시, 명동성당 대성전

**2024년 혜화동성당 혼인미사 예약**

혼인미사: 매주(토) 11시, 14시 / 문의: 02)764-0221  
 연중 수시 접수 / 성당 홈페이지 참조  
 우수한 건축양식과 미술품으로 가득찬 혜화동성당에서 혼인미사 예약을 받습니다 / 혼인미사 전용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피로연장 완비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4월11일~5월30일 매주(목) 14시~17시(8회)  
 곳: 용산성당(주최, 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3월24일(일)까지 접수 / 문의: 010-3182-7449

**2024년 부활 평화마켓**

청년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판매금액의 일부는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때, 곳: 3월16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1층 카페  
 문의: 02)338-7832 청년문화공간JU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4월9일~5월28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주최) 임시성전(송파구 동남로 18길32, 4층) /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esort.modoo.at

**전진상 교육관**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ijscen.or.kr)

자각명상(AMR)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3월~5월 셋째주(토) 10시~16시
내 영혼이 깃드는 집, 나의 몸(사순 피정)	3월22일 10시~17시 18시, 명동성당 미사 봉헌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 작은 피정·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 청소년·청년 환영  
 때, 곳: 매일 세번째(토) 3월16일·4월20일·5월18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신정3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2060-8051**

대상: 신자로 시설관리, 방호, 영선, 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및 이메일(leesy2205@seoul.catholic.kr) 접수

**중립동약현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 대상: 세례받은 교우, 신체 건강하신 분으로 본당시설 관리·방호 미화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3월15일까지 우편·방문(우 04506, 서울시 중구 청파로 447-1) 및 이메일(yak1891@catholic.or.kr) 접수

**서울대학교 성 앙베르 센터(피정의 집)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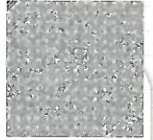
곳: 진관동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인원: 미화원 2명(숙소관리·미화업무 등), 방호원 1명(전기·가스·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3월27일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타교구는 주임신부님 추천서로 대체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4월20일(토) / 시간은 개별 연락	공세리성당(대전교구)	010-4889-1830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3월16일(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010-8573-0567
전교가르멜 수녀회	3월23일(토) 14시	본원(통의동)	010-5894-7764 (문자)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4월7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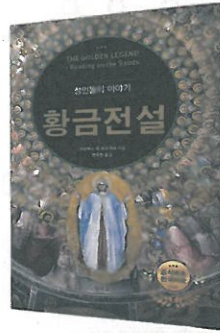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내 마음이 어때서**

홍성남 지음  
생활성서사 | 168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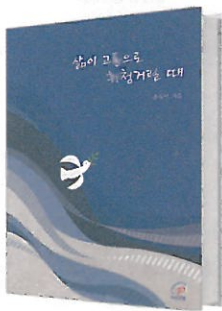
홍성남 신부의 '톡' 쓰는 영성 심리에세이. 상담과 강연, 집필, 방송 등으로 수많은 이들과 만나며 영성 심리상담을 해 온 저자는 솔직한 재치와 입담,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과 분석으로 나도 잘 모르겠는 내 마음, 가면을 쓴 채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주며, 일상과 신앙생활을 건강히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준다.



신간  
**황금전설**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 지음  
일파소 | 1108쪽 | 7만8천원  
문의: 02)6437-9114

이 책은 13세기 도미니코회 수사 출신으로 제노바의 대주교를 역임한 저자가 중세 유럽 가톨릭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성인들의 기록들과 전설을 집대성한 방대한 성인전이다. 중세의 민속학,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도구가 되어왔고, 종교사와 미술사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신간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 152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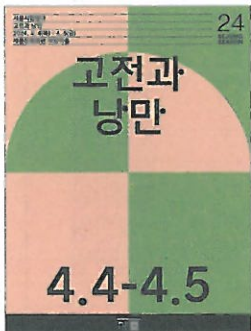
"인생의 역경을 껴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갈 창조적 힘이 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통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따뜻한 음성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요한묵시록**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60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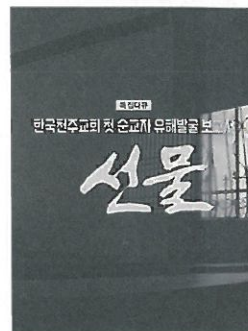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날관 시리즈 중 요한묵시록에 관한 책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봉사자 없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연  
**낭만적 하이든과 고전적 브람스**

때, 곳: 4월 4일(목)~5일(금),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10% 할인

서울시합창단의 M 컬렉션 시리즈 첫 번째 무대인 <고전과 낭만>이 4월 4일(목)~5일(금)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있다. 하이든의 후기 작품 '전쟁 미사'(Missa in Tempore Belli)와 브람스의 '알츠에 불인 사랑의 노래'(Liebeslieder Waltzes) 전곡을 감상할 수 있다.



cpbc 방송  
**특집다큐 한국천주교회 첫 순교자 유해 발굴 보고서 신물**

방송 시간: 3월 10일(주일) 13시, 3월 11일(월) 16시, 3월 13일(수) 19시, 3월 14일(목) 22시 30분, 3월 16일(토) 9시 50분, 3월 17일(주일) 10시  
문의: 02)2270-2621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 해 순교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복자의 유해 발굴 과정과 그 은총의 의미를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그들의 치열했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고, 이번 발굴의 의미는 무엇인지, 진정성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세밀하게 살펴본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출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3월 2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3월 28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3월 29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3월 30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3월 31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3월 28일~30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3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본당 소속 단체 홍보

5월말까지 신입 단원 및 단체 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미사 시간 및 성당 마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3월 29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17일(주일)/매 주일 청년 미사 후

◎ 여성구반장회합 : 3월 10일(주일) 12시/소성전

◎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17일(주일) 오후 1시 / 대성전

◎ 남성형제 안산자락길 걷기

일시 : 3월 23일(토) 11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마당에서 인원 점검 후 출발  
대상 : 본당 모든 남성 교우  
\*행사 후 뒤풀이 친교 모임  
문의 : 요아킴 총구역장 (010-4913-1158)

◎ 도서출판 <성서와 함께> 문서선교 결과

도서	성물	합계
5,626,500원	2,329,100원	7,955,600원

※ 도움 주신 모든 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 사순시기 성경 필사 중간모임

일시 : 3월 10일(주일) 청년 십자가의 길 후  
대상 : 청년 누구나 / 장소 : 지하식당

◎ 청년배움터바로 69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모집 : ~ 3월 16일(토)  
여는마당 : 3월 17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성서 백주간 그룹원 모집

성경을 3년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작 : 4월 5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문의 : 안정란 알레스 봉사자 (010-8312-2198)

◎ 군입대 자녀 부활 선물은 3월 24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3. 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3	582 (28.8%)	527 (26.1%)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이점금 헤레나 상가.....오십만원  
故 진경선 세례자요한 상가.....오십만원

◎ 감사헌금 (2월 26일 ~ 3월 3일)

곽선모 .....오천원      이의준 .....삼십육만원  
익명 .....일십만원      유성연 .....이백만원  
임옥자 .....일십만원      신기철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정영자 .....일십만원  
최재상 .....일십만원      김예린 .....일백만원  
은희봉 최분비 .....오만원  
故 진경선 세례자요한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3주일)

교무금 .....12,070,000원  
주일헌금 .....6,781,410원

입당	124	봉헌	215,220,513	성체	176,160,168	파견	280
----	-----	----	-------------	----	-------------	----	-----



내가너를 생각하지않는다면      내허가입천장에달라붙으리라